

2024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로컬·농어업 분과 정책제안서

청춘남녀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활동 체험(섬촌)

- ❖ 청년 농어촌 활동, 청년 교류, 도시와 시골간의 연결
- ❖ 경남의 청년들이 농어촌 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현실과 미래를 찾아가고, 청년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농어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정책

□ 제안배경

- 농어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소멸
- 지역소멸과 청년인구의 이탈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일손 부족 현상 심화
- 농어촌 급속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가속화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인구 유동 및 농어촌 지역의 청년 종사자 감소 심각
- 농어촌 지역의 청년과 연계된 행사 및 정책의 부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법률)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조례) 경상남도 청년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추진방향)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청년이 농어촌 지역으로 체험을 하여 청년들간의 교류와 농어촌의 의해를 알아가는 형태
- (사업기간) 2025년 2월 ~ 8월
- (사업대상) 도내 거주하는 청년(만 19세 - 39세)
- (사업량) 참여자 20명, 스태프 10명
- (사업위치) 청년정책과에서 심사하여 지정하는 농어촌 지역
- (소요예산) 44,000,000원
- (주요내용) 농어촌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 적합한 농어촌 및 시군 제안 평가에 따라 농어촌 지역선정
 - 대상자 모집 및 활동 지원가 구성

□ 세부계획

① 참여자 구성 및 모집

- (참여자 구성) 도내 거주하는 청년
 - 연령대를 청년(만 19세 ~ 만 39세)으로 구성하되 신분에 따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으로 나눔.
 - 참여자 20명 기준으로 남녀 성비 및 적절한 연령으로 구성
- (참여자 모집) 오프라인/온라인 공개모집
 - 참여자는 경남청년정책플랫폼을 활용하여 모집 진행
 - 기존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 분과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 진행
 - 지원서 작성을 통해 지원자 모집, 선별하여 구성(SNS하는 지원자 위주)
 - 프로그램 인솔 가이드 모집(농어촌 청년 or 농가 운영자)
- (참여자 및 운영단 구성) 홍보 운영 업체 선정 및 참여자 선별
 - 도내 행사 및 청년 전문가로 구성하여, 업체 선정
 - 경남청년정보플랫폼에 참여자 양식 지원서 접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

- 도내 언론사 및 청년 정책 관련 통로를 활용하여 적절히 홍보
- 시군 제안서 접수를 통해 적합 농어촌 활동 지역을 선별(밭 갈기, 비닐하우스, 잡초 뽑기 위주)

② 운영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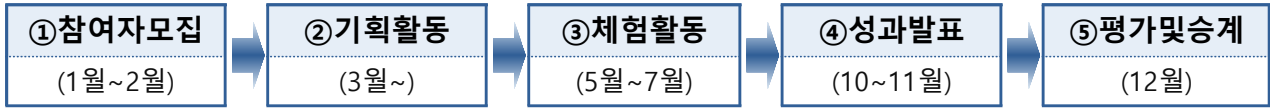
○ (청년 농어촌 활동) 1박 2일로 구성된 농어촌 체험 및 행사

- 경남의 농어촌 콘텐츠가 담긴 웰컴 키트(플로깅 키트, 단체티 등)를 제공
- 지정된 농어촌 체험을 위해 현장 종사자 인솔하에 교육 및 활동 체험[농어촌 플로깅, 농촌(스마트팜, 6차산업, 농촌 체험교육(화분 만들기)교육, 레크레이션)] 진행
- 농어촌 종사자 또는 청년 농어업인의 특강을 통한 경남 농어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
- 농어촌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 간의 농어촌의 생각과 의견 나눔을 통한 교류 활동을 통해 농어촌 속 청년의 미래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
- 농어촌 현장 탐방을 통해 농어촌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짐
-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구체화하고 특히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베네핏(예:농어촌 활동 자원봉사점수, 수수료증 등) 증정
- 참여자에 따라 도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참여비 및 소정의 상품 혜택을 제공

○ (활동 홍보 및 아카이빙) 청년 농어촌 체험 활동 기록화

- 청년 농어촌 체험 중 활동된 사진 및 영상 기록물을 아카이빙화 하여 경남청년정보플랫폼에 게시 운영
- 경남청년정보플랫폼 기반의 SNS 채널 홍보 게시운영
- 지속될 시 승계 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사회 청년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
- 우수 참여자 대상 기프티콘(지역상품권 3만원) 또는 상품 지급

3 추진일정



4 운영예산

| 항목 | 세부내역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비고 |
|------------|--|------------------|----|
| 총 계 | | 44,000 | |
| ① 운영업체 선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단 구성비 - 운영업체 심사단 5명 X 100천원 = 500천원 - 참여자 심사단 5명 X 100천원 = 500천원 · 홍보 포스터 및 홍보 링크 디자인 - 홍보 포스터, 카드 뉴스 = 10,000천원 | 11,000 | |
| ② 체험활동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비(현장 운영비) 20,000천원 · 대여비 및 구성비 5,000천원 · 보험료 3,000천원 | 28,000 | |
| ③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카드, 임명장, 단체의류(티셔츠 또는 후드티), 배지 5,000천원 | 5,000 | |

□ 기대효과

- 경남 청년 정책 ‘썸촌’ 이라는 소개팅으로 지역에 농어촌체험을 통해서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인식 개선 활성화
- 청년들이 생활 속에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도심 속 스트레스를 농촌활동을 통해서 해소
- 도시와 농어촌의 연결 매개가 청년이 되어 청년인구 지역 소멸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여지가 있음

☐ 참고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0254?rc=N&ntype=RANKING>



1. 수도권 집중현황

○ (수도권 인구 집중)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국토의 약 12%를 차지하면서도 인구의 절반 이상(50.6%, 2023년 기준)이 거주

- 우리나라 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 OECD 26개국 중 1위인 반면, 인구 2~4위 도시의 합산 인구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 수준

○ (청년층 인구 이동)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자연증감(출산-사망)의 지역간 차이보다 지역간 이동(사회적 증감)에 주로 기인하며, 이동 중 대부분은 청년층 인구(15~34세)가 차지

- (비수도권 청년층 인구 유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소멸위험

-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입) 2015~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유입으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었으나, 반대로 동기간 동남권, 호남권, 대구·경북권에서는 인구감소의 각 75.3%, 87.8%, 77.2%가 청년 유출인 것으로 나타남

2. 청년층 지역간 이동요인 및 그에 따른 영향

○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은 기대소득과 함께,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진 데에서 주로 비롯

- 2015년과 2021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을 비교하면, 모든 부문에서 불균형이 확대

- 月평균 실질임금 격차(34→53만원), 고용률 차이(3.8→6.7%p), 1만명 당 문화예술활동(0.77→0.86건), 1천명당 의사수(0.31→0.45명) 등 모든 부문에서 불균형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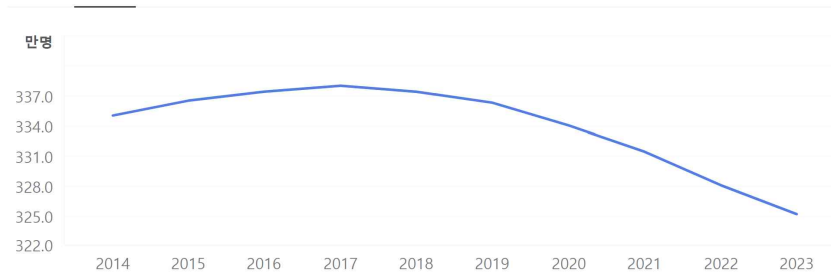
○ (청년층의 이동과 출산율) 청년층은 다른 연령보다 출산율이 높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은 지역 내 출생아 수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침

- 청년유출 지역은 출산율이 급감하나,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해 전국의 출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교육열 상승, 육아시설 부족 등에 따른 양육비용 부담과 대도시 여성의 고임금이 출산의 기회비용으로 작용, 출산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출산율('21년 기준 서울 합계출산율 0.63명, 道지역 0.94명)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데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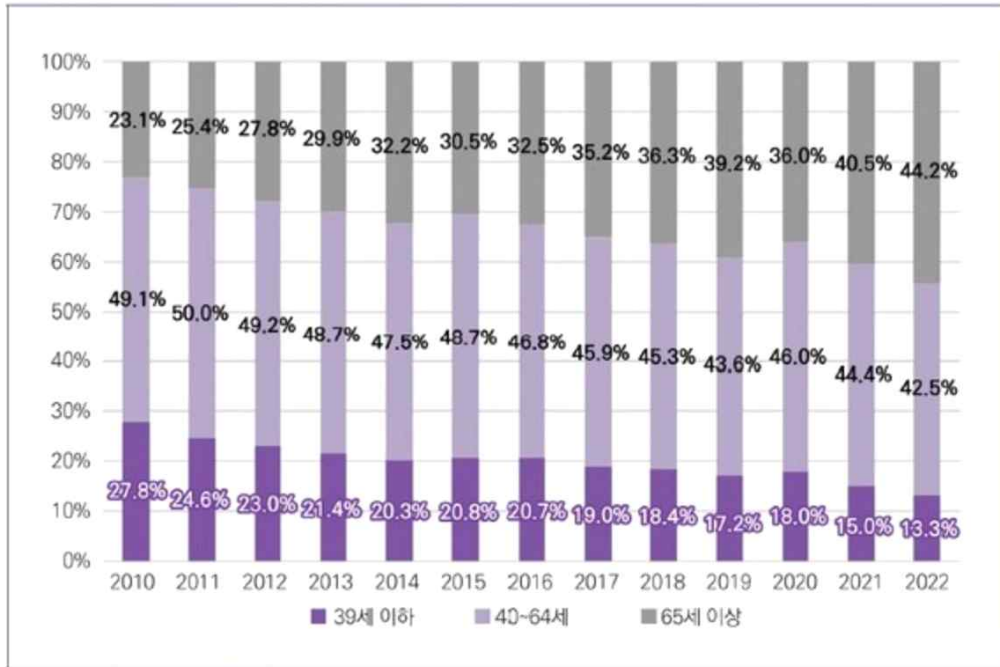
경상남도 전체 **324만 4,232명** '24.02

요약 **연도별**



출처 KOS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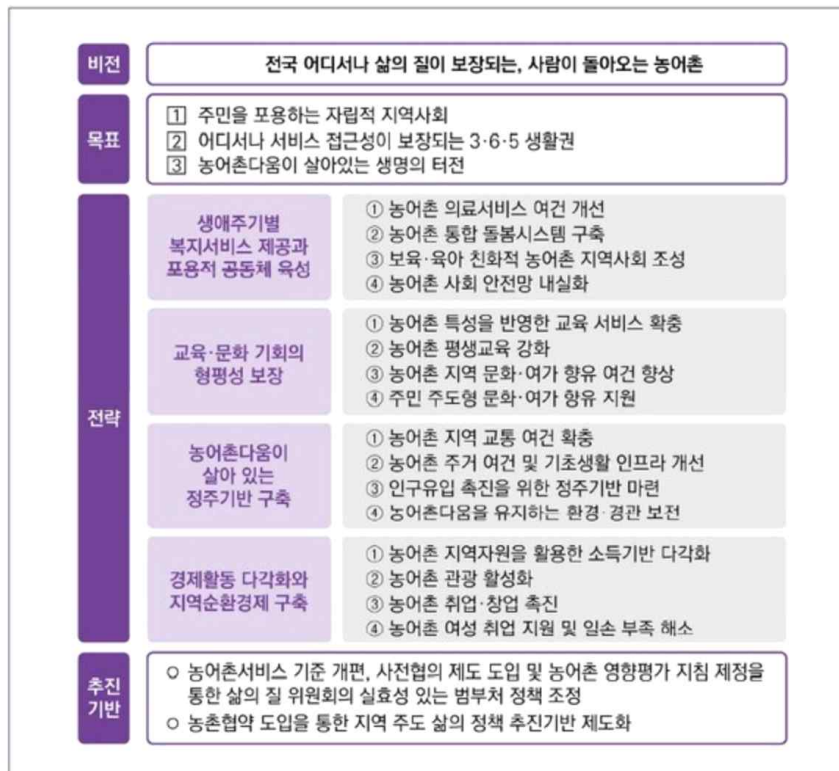
[그림 11]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2010-2022)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년도.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2010-2022)/사진=국회미래연구원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력정책 방향' 보고서

[그림 14]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과제/사진=국회미래연구원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력정책 방향' 보고서



[사람속으로] 함안농부협동조합 박재민 이사장

농촌은 '기회의 땅'... 편견 갈아엎고 '건강한 공동체' 일궈갑니다

기사입력 : 2023-11-29 21:28:17

 좋아요 25개

 게시

서울서 대기업 요리사로 일하다 귀농
초기 시행착오 협동조합 만들어 극복
청년·지역 농업인 함께 신제품 등 개발

코로나 위기로 체험 프로그램 매출 '0'
농산물 온라인몰 구축 등 사업 다각화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등 수상 쾌거

“삶을 풍족하게 만들 기회 많은 농촌
함께 노력·성장하는 '팀다운 팀' 통해
건강한 공동체 유지해 나가고 싶어”



박재민 함안농부협동조합 이사장이 함안군 군북면 별별체험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국민일보

좋아요 VS 좀 그래... 지자체 청춘남녀 소개팅 '갑론을박'

입력 2024.02.11. 오전 12:11 기사원문

장선욱 기자

추천 2

가

New 친소 4/7

New 친소 행사 일정

<프로그램>

| 일시 | 프로그램 내용 | 비고 |
|-------------|--------------|-----------------|
| 19:00~19:20 | 참가자 도착, 자기소개 | 가면 쓰고 등장 |
| 19:20~19:30 | 픽 찾기 | 닉네임에 맞는 픽공 찾아가기 |
| 19:30~20:30 | 커를 게임 | 상품 증정 & 픽바꾸기 찬스 |
| 20:30~21:00 | 최종 선택(방석게임) | 최종커를 상품 증정 |

* 23일, 24일 동일 프로그램 진행
 * 최종 커를에게는 2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증정!!!

성남시가 지난 두 차례 열었던 미혼남녀 만남 자리 행사 '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올해 3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시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4일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이 즐비한 판교 콘텐츠 거리에서 홍보부스를 차려놓고 청년층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솔로 지수 자가 진단 테스트'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홍보 행사에서는 총 260명(남·여 각 130명)이 참여할 수 있는 3·4·5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 안내 전단도 나눠 줬는데, 앞으로 행사 일정과 참여 인원은 △3차=9월 23일 텀 퍼블릭 판교점, '캐주얼 파티' 100명(남·여 각 50명) △4차=10월 28일 제부도 '가을 바다 소풍' 60명(남·여 각 30명) △5차=11월 지역 내 호텔(장소 미정), '미리 성탄절 파티' 100명(남·여 각 50명) 등이다.

각 행사일에 연애 코칭, 식사 시간, 돌아가며 1대 1 대화하기, 커플 게임, 본인 어필 타임, 썸 매칭 등을 진행해 인연을 찾도록 도와준다.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1997년~1985년생(27~39세)의 직장인(자영업, 프리랜서 포함) 미혼남녀가 참여할 수 있다.

3차 행사 참여 신청은 오는 9월 8일까지, 4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7일~10월 13일이다. 5차 신청 기간은 추후 확정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시청 저출산대책팀을 방문해서 신청해도 된다.

시에 따르면 솔로몬의 선택은 앞서 1·2차 행사 참여자 접수 때 총 200명(남·여 각 100명) 모집에 1188명(남 802명, 여 386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내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남녀 100쌍 중 39쌍(1차 15쌍, 2차 24쌍)의 커플 매칭이 성사됐다. 성남=

김준성 기자(kcs8@dt.co.kr)